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자기 마음 아는 사람은 드물어

철야정진법문 ⑩

왜 눈이 보는 것 아닌고? 눈에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 비치긴 비쳐도 볼 줄 모르거든. 보는 놈은 따로 있거든. 눈에 비친 걸 보는 놈이 따로 있어. 인제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라 말이여. 귀에 지혜가 없거든. 그런데 듣기는 듣는 기관은 기관일지언정 말이지 그 아는 놈은 따로 있거든. 이것이 뭣꼬? 혓바닥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뭣고? 뭣이냐 말이여. 뭣이 마음이냐 말이여.

사실로 마음 아는 사람 좀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마음을 아는 사람 백 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백 명이 못 되면 오십 명 정도 될까. 오십 명이 못 되면 스물다섯 명쯤 정도 될까 스물다섯이 못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쯤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자리에 대해서 말이지 숱한 명자가 있어요.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숱한 명자가 있습니다. 화두식으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있는데 좌우간 어쨌든지 마음이 말이지 내가 마음을 써. 내가 마음을 쓰긴 쓰는데 모른다 말이여.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허공아까 말했죠?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써. 허공 없는 것 같지만 허공중에서 산하대지가 다 나와. 그럼 허공 없는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이것이 지혜가 없는 눈을 가지고 보고 지혜가 없는 귀를 가지고 듣는다 할지라도 말이지 있으니까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그만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히 봤다. 틀림없이 봤죠. 내가 확실히 들었다. 틀림없이 들었지만 사실 듣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린데 마음이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서 찾느냐 이거에요.

허공 걷어잡아야 됩니다. 허공 걷어잡지 않고 마음을 알았다면 그건 만년 거짓말입니다. 석가세존이 그랬더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허공 걷어잡아야 돼. 허공 걷어잡기 전에는 마음 몰라. 그러면 허공을 내가 또 알아야 되겠다 말이지. 마음 걷어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말이지 허공이나 마음이나 매 한가지라. 매 한가지라. 아까 크고 적은 걸 말했지만 말이지 공부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헤겔이 이걸 못 걷어잡았어. 헤겔 머리 좋은 사람이여. 굉장한 사람이여. 그러나 이 절대성 자리, 이 마음자리 못 걷어잡았거든. 이것은 말이지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내 무식하거든. 내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여. 못 걷어잡았거든. 다윈도 역시 그래요. 요 절대성자리 딱 파악을 못 했어요. 굉장한 세계적인 우수한 학자인데 세계적인 우수한 삼계의 학자라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 별 수 있나요?

그러하니 그러면 절대성 자리가 있어. 이거 절대성이라고 합시다. 마음이라 뭣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절대성 자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투는 건 전부 상대성이여. 태양도 상대성, 지구도 상대

> **허공 걷어잡지 않고**
> **마음을 알았다면**
> **그건 만년 거짓말입니다.**
>
> **허공이나 마음이나 매한가지**
> **헤겔도 마음자리 파악못해**

성, 어느 것 상대성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이름 붙인 건 상대성이라.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절대성에서 온 것이거든. 절대성자리에서 그걸 무명이라 하는데 안밝음, 우리말로 안밝음. 한문으로는 무명, 그러니까 입처가 다르거든. 다르니까 이 사람 이대로 나타나고 저 사람 저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삼라만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 말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지 우주를 싸고 있든지 그 다음에 조그마한 바늘귀 속에 앉아 있든지 그건 별문제여. 자유자재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나 한 가지에요. 산하대지가 나왔으니 어땠겠죠? 또 이 허공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하고 꼭 한가지거든. 그러면 허공은 지혜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가 있어. 알았죠? 허공은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있는지 모르죠. 허공, 여러분의 마음은 지혜가 있어. 요래 할까 저래 할까. 부회(화)가 난 일이 있으면 한 주먹 갈기기도 하고 이런 지혜가 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겸손한 생각으로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겠죠? 난 누리의 주인공 아니다 이래 하는 그 놈이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상대성이라 하는데 지구니 태양이니 뭣이니 나무니 돌이니 할 것 없이 사람이니 전부 상대성에 속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실은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절대성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면 말이지 벌써 인간이란 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 잘나고 못나고 간에. 못나면 못난 대로 누리의 주인공이고 잘나면 잘난 대로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 다 포기해 버리고 나는 못나서. 물론 잘 살고 못 사는 건 있어. 그건 복덕관계여. 인연관계여. 잘 사는 일을 하면은 벌써 그 자리가 입처가 잘 살게 돼. 전생에 내가 어쨌든지 말이지 내가 행동을 잘못 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자리 태어나지 못하고 나쁜 자리 태어나게 마련이여. 그래서 고생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까짓 거 이 자리, 이것만 알아버리면 그건 저절로 해결이 돼. 그러하기 때문에 인연관계, 잘 산다 못 산다 요걸 갖다 인연관계라고 생각이 딱하게 자신이 딱 서면 아무리 잘못 살아도 바로 천당이여. 그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거여. 재미가 나는 거여. 아, 내가 빚 갚아야 되겠다. .누가 와서 뺨 한 대 때려도 곱게 맞아. 웃으면서 맞아. 이런 도리가 있는 거여.

왜 그러느냐. 그 전생관계, 절대성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 헤겔 같은 사람 이걸 몰랐거든. 사람은 다 공평한 거예요. 절대 공평한 거여. 그건 틀림이 없어. 절대로 공평한 거여. 공평하겠지만 작용하는데 있어서 말이지 그 씀씀이에 있어서 말이지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되고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절대성자리 몰랐다 이것이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삼보는 깰 수 없는 다이아몬드

4-9 귀경례

이렇듯 지관(止觀)의 수련을 통해 문(門)에 대한 의심을 풀어 버린다.

불교는 전진적(前進的)인 것이다. 삿된 집착을 버리고 부처의 도(道)를 넓히고 널리 선포하는데는 '나' 라 하는 것, 조그만 나의 견해 같은 것을 버리고 우주적인 대아(大我)와 공정성(公正性)에 의하여, 방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후퇴하지 말고 끊임없이 분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아비발치라고 하는데 불퇴전(不退轉)이라는 뜻이다.

至心歸命 十方法界常主三寶(一拜)

시방(十方)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유사방(四維四方)인 동서남북과 상중하(上中下), 그리고 과거 · 현재 · 미래 · 이렇게 열 개의 방위라는 뜻이다. 우리말로 시방이란 시간적으로 현재를 가리키는데 비추어 언제나 현재가 이 모든 방위의 중심이 된다.

법계(法界)는 종횡이 구족한 경계를 이름. 종횡이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 두루 갖추어져 만족한 상태에 놓인 세계라는 말. 이는 원효대사가 풀이한 말씀이다. 상주(常住)는 〈열반경(涅槃經)〉에서 말하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이 한가지로 구비된 자리다. 불교에서 무상(無常)이라 할때는 반드시 유상(有常)을 내다보고 하는 소리며, 고는 극낙(極樂)을 전제한 명제이며 무아(無我)라는 것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열반(涅槃)의 대아(大我)를 지향하는 말인 것과 같이, 번번히 염구(染垢)를 들먹거리는 것은 청정상(淸淨相)을 이에 대비하여 강조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여기 상주(常住)라는 것은 상낙아정이라는 이 네 글자가 가리키는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삼보(三寶)는 이미 말하였거니와 불보(佛寶)인 부처님과 법보(法寶)인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승보(僧寶)인 부처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회단체. 이 셋은 광명(光明) · 정대(正大) · 화합(和合)으로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광명의 반대가 암흑이고, 정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왜곡과 모략이며 화합을 그르치는 것이 파괴라는 것을 상상해 보라. 광명, 정대, 화합의 반대 세계, 즉 암흑과 왜곡 · 파괴로만 뒤엉킨 세계는 정말로 겁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보를 성취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불가사의한 덕과 진리가 모두 망라하여 갖추어져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자재(自在)로운 마하반야(摩訶般若)가 무르녹아 있다. 이러한 마하반야의 삼보는, 밝고 바르고 사이 좋은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다. 이 세가지 덕성(德性)을 갖추었을 때 어떠한 헐뜯는 쟁논(諍論)도 이를 깨트리지 못하고 물러난다, 이것이 금강불괴(金剛不壞)이다.

원효대사는 삼보의 덕을 세 가지로 보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첫째는 심덕(心德)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또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업상(業相)이 참으로 위대하여 생(生)으로부터 사(死)에 이르기까지 다 풀이하시었고 또 광대 무변한 부처님의 일을 이룩하시었다. 이것은 심덕의 체(體)를 표현한 것이다.

> **불보 · 법보 · 승보**
> **덕과 진리 모두 망라한**
> **원융무애한 자재로운**
> **마하반야가 삼보에 있다.**
>
> **원효대사는 삼보의 덕을**
> **심덕 · 색덕 · 명호에**
>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심덕(心德)의 용(用)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저 도솔천(兜率天)에서, 마야부인(摩耶夫人)의 태중에서, 룸비니원에서 나서, 커서, 장가 들고 성(城)을 넘어서, 입산(入山)하여, 수도하고, 마구니 항복받고, 중생을 교화하고 마지막으로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 입적열반하셨다. 이를 팔상성도(八相成道)했다고 한다. 팔상성도로써 인간이 가진 모든 현실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큰 공덕(功德)을 베푸셨다.

둘째는 색덕(色德)인데 이의 체와 용은 앞에서 얘기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셋째 명호(名號)에 큰 덕이 있다. 이름을 이어 관세음보살 · 아미타불 · 대세지보살 · 문수보살 · 보현보살 · 원효보살 하면 그 명호 자체가 중생을 건지는 덕이 있어 대자대비를 표현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지경, 인간의 모든 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대비를 주로 삼아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불법승 삼보의 보(寶)라는 글자에는 위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5. 탄불게(歎佛偈)

如來妙色身 世間無與等
無比不思議 是故今敬禮
如來色無盡 智慧亦復然
一切法常住 是故我歸依

집은 청소를 하였다. 몸과 집을 쓸고 비질을 하여 청청히 해 놓고 다음엔 더 정성을 들여 오분향(五分香)을 피워 향기롭게 만들었다. 여기 우리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대성자들을 모시었다.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님과 부처님의 이상을 상징한 모든 덕(德)을 구비한 아미타불(阿彌陀佛)과 또 이를 각이덕상(各二德相)의 부분적으로 표현한 문수보살(文殊菩薩) · 보현보살(普賢菩薩)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또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덕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되새겨 잘 풀이하신 원효보살(元曉菩薩)등을 시방상주(十方常住)의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가 갖추어진 우리의 집, 법당(法堂)안으로 모셨다고 하자. 이와같은 거룩한 어른들을 모시고, 마주 대하고, 바라보노라니 그분들의 덕행(德行)이 장엄한 데에 대하여 환희심이 나고 칭양 찬탄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분들께 게송을 한다. 게송은 범어로 〈가타〉라고 한다.

이 게송의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여래의 미묘하고 유다른 색신은(如來妙色身) 우리의 눈에 환히 보이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어 묘한 빛갈의 카야(世間無與等), 그 몸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할 바 없다(無比不思議).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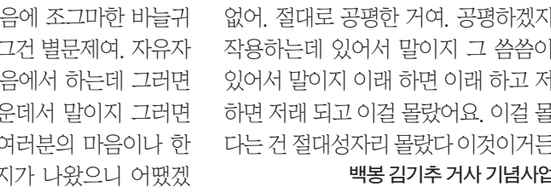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